

환율 압박과 나이지리아 수입 패턴의 변화

Joseph I. Amuka Lecturer
University of Nigeria

■ 주요 내용

- 1986년 나이지리아 내 구조적 조정기 이후부터, 이전에 시행되었던 수입인증제도는 폐지되었음. 이로써 나이지리아의 내외국인들이 국제 무역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됨.
- 수입 수요 패턴은 해외 무역 분야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변화하였음. 특히 2015년에는 환율 압박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.
-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일 내놓았지만, 이중 환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임.

KIEP **대한경제정책연구원**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
<http://www.emerics.org/> <http://www.kiep.go.kr/>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

나이지리아 수입인증제도 폐지와 외환 수요 증가

☒ 1986년 나이지리아 내 구조적 조정기 이후부터, 이전에 시행되었던 수입인증제도는 폐지되었음.

- 수입 인증제도 폐지 이후 나이지리아인들은 수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됨.
 - 더불어 수입 인증제도 폐지는 외국의 공급자들과 제조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이지리아 경제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음.
- 나이지리아의 무역 기조는 경제 자유화와 무역 개방성의 증대로 변화함.
 - 유럽과 북미지역에 집중됐던 나이지리아의 국제 무역은 아시아, 남아메리카, 아프리카 지역, 특히 서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(ECOWAS)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다변화되었음.
- 1999년 민간 정부로 회귀한 이후부터 나이지리아 내 외환 수요는 증가함.
 - 나이지리아 내 외환수요 증가로 국내 통화의 공식 환율이 1998년 12월 당시 달러 당 21.89 나이라(한화 약 81원) 수준에서 1999년 12월에 달러 당 92.69 나이라(한화 약 343원) 수준으로 평가절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.
- 2013년의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화폐 가치는 더욱 하락함.
 - 2013년 12월의 환율은 달러 당 157.31 나이라, 2014년 12월에는 158.55 나이라였음.
 - 2015년 12월의 환율은 달러 당 193.28 나이라였으며, 2016년 11월 29일에는 달러 당 305나이라를 기록함.
 - 즉, 2013년 이후 달러 당 나이라 환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2016년 11월 29일, 당시 암시장의 환율은 달러당 400 나이라(한화 약 1,481원) 수준이었음.
 - 사업상 통용되는 공식 환율로 거래하기 어려워지자, 암시장에서의 수요압¹⁾이 커짐.
 - 이로 인해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간극이 확대되었음.
 - 더불어 암시장 내 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 나이지리아에서 유통되는 소비재의 70%는 수입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나이지리아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겪음.
- 국제 석유 시장에서의 회복 실패는 나이지리아 내에 다음의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킴.
 - 수입 제품과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 상승
 - 수입 원자재 사용 산업의 폐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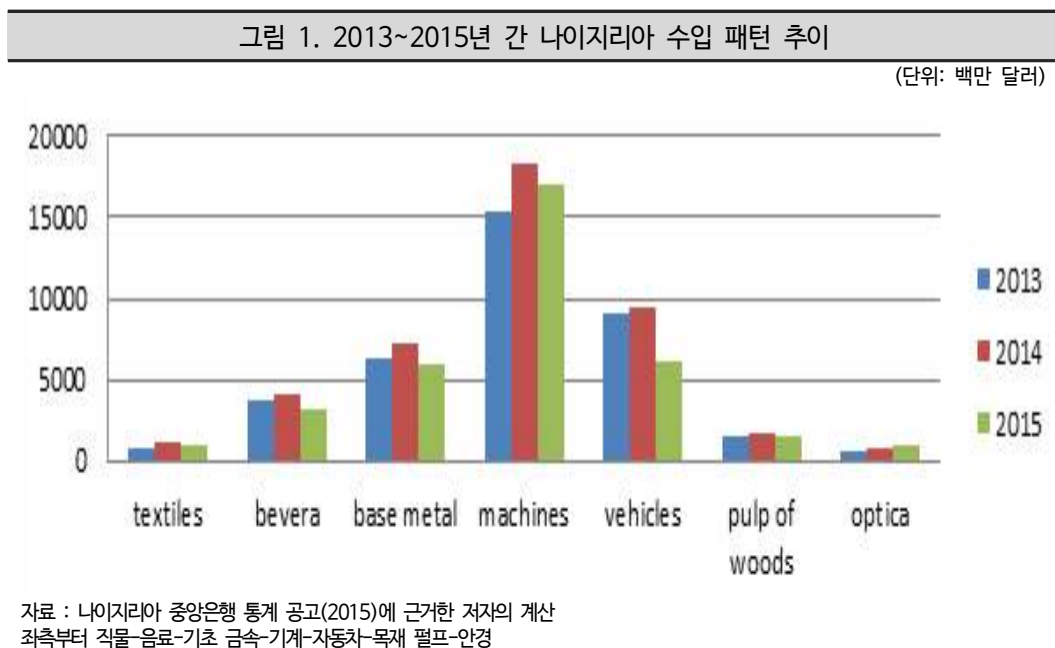
1) 수요가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을 의미함. 편집자 주.

- 해외 생산을 대표하던 기업의 폐업
 - 지역적으로 생산된 제품, 특히 신발과 직물 제품의 수요 증가
 - 민간 부문의 실업 현상
- 이러한 충격에 대비하여, 나이지리아인들은 높은 환율로 인해 줄어드는 수입과 제품의 가격 상승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소비 행태를 조절함.

2 나이지리아의 경제 위기와 수입 패턴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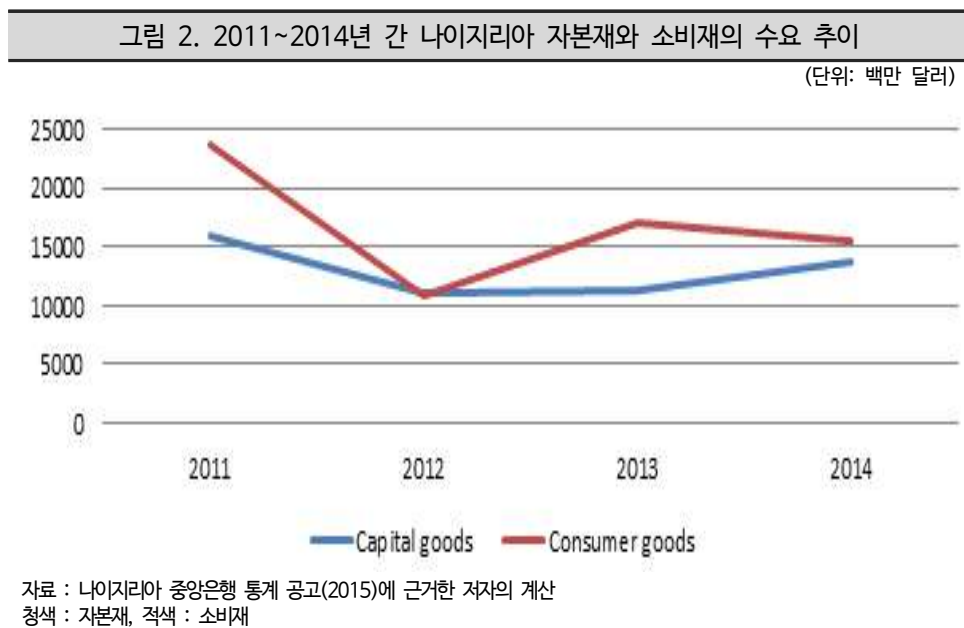
수입 수요 패턴 변화는 해외 무역 분야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변화하였음. 특히 2015년에는 환율 압력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.

- [그림 1]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대 일상용품의 수입 수요에서 나타난 환율 압력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.



-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- 그러나 기계 분야의 2015년의 수입 수요는 2013년에 비해 증가함.
 - 이는 나이지리아의 산업이 수입 기계 및 장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한 특별한 경우임.
 - 자동차 산업은 산업 분야 중 가장 어려움을 겪었음.

- 다음 [그림 2]는 환율 압박으로 인한 자본재의 수요 증감을 파악할 수 있음.
 -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나이지리아에서는 자본재 수요가 증가한 데에 반해, 소비재의 수요는 감소하였음.
 - 이는 나이지리아인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.
 - 자본재의 경우, 소비자에게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경제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적음.
 -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자본재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것이지만, 지금과 같은 소비 성향을 보이지는 않을 것임.



3

전망과 시사점

☒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일 내놓았지만, 이중 환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임.

-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 가격이 계속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, 내년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음.
- 상원 의회는 경제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290억 달러(한화 약 34조 원) 규모의 차관을 들여올 것을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고, 이로써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임.

- 세계 제4위 토마토 페이스트 생산 기업인 ERISCO 식품과 같은 나이지리아 내 주요 회사들이 폐업하면서, 많은 사람들은 내년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.
-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는 경제 다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꾀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음.
 - o 정부는 나이지리아의 중소기업 기업을 위해 중앙은행에 2,200억 나이라(한화 약 8,174억 원) 규모의 자금을 예치해놓았음.
 - o 그러나 환율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,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.
- 하지만 정부가 이중 환율을 도입하지 않는다면,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임.
- 정부 차원에서도 석유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석유를 추출하는 니제르 델타(Niger Delta) 주민들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.
- 만약 내년 초까지 현재의 환율에 대한 압력이 진정되지 않는다면, 나이지리아의 수입 및 무역의 상황은 더욱 침체될 것임. **EMERiCs**

출처

- Central Bank of Nigeria Statistical Bulletin (2015)
- World Bank 국제무역통계(2015)